

2002년도 고품질 쌀 생산대책

Superior Rice Production Measures in 2002

박 종 민*
Park, Jong Min

1. 머리말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서는 값싼 양질의 자포니카 계통의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중국 동북 3성은 강수량은 적지만 일조량이 많아 양질미 생산에 적합하고 우리 쌀에 손색없는 양질미가 대량 생산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농가는 수익성을 목표로 다수확 위주의 품종을 선택하고, 질소 비료의 시비량도 표준시비량 11kg보다 많은 18~20kg을 시비하는 등 다수확 재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어 품질경쟁력이 미흡하다. 생산된 쌀도 고온 급속 건조, 품종간 혼합 가공 유통 등 수확후 관리(Post-harvest)가 소홀함에 따라 미질이 떨어지고 품종간 차별화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96년이후 벼 재배면적이 연평균 5.5천 ha씩 확대되었고, 농업용수 개발 등 생산기반 시설 정비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다수확 농업의 개발 보급 등에 따라 10a당 쌀 생산량은 1990년 451kg에서 2001년에는 516kg으로 14.4% 증가되는 등으로 쌀 생산량이 1990년 3,696만석에서 2001년에는 3,830만석으로 증가되었다. 이에 비하여 1인당 연간 쌀 소비

량은 1990년 119.6kg에서 2000년에는 93.6kg으로 21.7%가 줄어 드는 등 쌀 소비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전체 쌀 재고량은 '97년 345만석, 2000년에는 679만석, 2001년에는 989만석에 달하고 있어 쌀 값이 하락하는 등 쌀 산업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쌀 산업과 관련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1년 12월 농림부에서는 2002년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양(量)의 농정에서 질(質)의 농정으로, 생산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대량생산보다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중시되는 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농림부의 2002년도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중장기 쌀 생산방향

가.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질 중심의 경쟁력 제고

정부에서는 고품질 벼 품종과 재배기술 등의 보급 및 정보 제공 역할을 하고 농업인은 소비자 지향적인 쌀 생산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질(米質) 중심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품종 육성은 고품질 품종 및 기능성 위주의 품종 육성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농림부 시설관리과 (jmpark@maf.go.kr)

고품질 품종을 조기에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종자 보급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는 질소질 비료의 감축 시비 등 고품질 쌀 재배기술 위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나. RPC를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의 주체로 육성

RPC (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와 농업인 사이의 계약재배(품종, 이앙시기, 수확기, 시비량 등)를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제와 수확후 관리(품종구분 수매, 저장, 가동 등) 체제의 일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RPC 중심의 「고품질 쌀 계열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식량안보를 위한 자급 기반은 유지하면서, 수급과 가격안정을 감안한 적정생산 유도

식량안보를 위한 자급기반(생산기반)은 지속적으로 보전 확충하되 수급균형 회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밭벼 재배억제 및 휴경논 생산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되, 우량 농지에 대한 우수개발 등의 기반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논 직불제 확대 및 다양한 쌀 농사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3. 2002년 고품질 쌀 생산 대책

가. 고품질 벼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

그 동안 농업인 들은 품질보다는 수량성 위주의 품종을 선호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확한 품종 내력 및 재배기술 등을 파악함이 없이 일본, 중국 등에서 재배되는 외래 품종을 도입하여 재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도

에는 고품질벼 재배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농가지도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종자보급

가) 고품질 정부 보급종 공급(20%)

2002년도에는 고품질 정부 보급종 10,300톤을 공급하여 전체 보급종의 74%를 차지토록 했다. 2002년 2월부터 농가에 보급되며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도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거쳐 농협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하게 된다. 고품질 벼 품종의 조기 확산을 위하여 일반종 공급 가격보다 적은 가격(△5%)에 공급할 계획이다.

나)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고품질 벼 종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율교환 추진(20%)

고품질 벼에 대한 농가들의 자율교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 군 농업기술센터 157개소, 지소 및 농민 상담소 465개소에 고품질 품종 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약 6천톤의 고품질 벼 품종을 알선하고, 「품종 비교 전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시험장 및 시범포산 고품질 품종 4천톤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품질 품종 재배농가를 파악하고, 고품질 품종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다) 자가채종(20%)

이미 고품질 품종을 재배하는 있는 농가에서 자체 확보한 품종을 계속하여 재배토록 할 계획이다.

2) 농가지도 및 홍보

농가의 고품질 벼 품종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품질 품종에 대한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전문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

기로 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28개 품종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 지대별 토양조건과 농가별 재배기술을 고려하여 농가에서 품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중국 등 외래 고품질벼 품종은 국가목록에 등재하여 품종별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촌진흥청과 시·도 주관으로 일본, 중국 품종을 재배하여 시험한 후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미질은 좋으나 재해에 약한 품종은 시비, 물관리, 병충해 방제 등 안전재배 기술을 정립하여 전파할 예정이다.

2003년에는 2002년도 고품질 품종은 증식 단계를 단축하여 최대한 생산하고 2002년도 생산한 고품질 원종을 전량 보급중 생산용으로 활용하며, 농가 및 RPC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원종 부족시에는 보급종을 재증식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국가 목록 등재 품종제의 성능심사기준을 고품질벼 품종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종자관리요강을 개정하여 미질 평가항목에 단백질 함량 기준 등을 추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 목록 등재 품종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2001.12)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품질 쌀 생산 지역 우선선정, 지역 특화사업에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 확대 관련사업 추가반영, RPC설치 운영 자금 지원시 고품질 쌀 계약재배 RPC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나.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 보급 및 지도 강화

그 동안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수량증대를 위

한 재배기술을 적용해 왔다. 질소질 비료를 과다 시비(표준 11kg/10a, 현행 18~20kg)하고 있으며, 병충해에 대한 잦은 방제(표준 5~6회/년, 현행 9~11회)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미질 저하 요인인 세균성 벼 알마름병, 노린재 등에 대한 방제는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비료 시비량 감축 방안을 강구하며, 지자체 및 시도 기관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농업인에게 전파하여 쌀 재배농가가 자율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농림부 : 고품질 쌀 생산기술 개발, 비료 시비 감축방안 추진

농림부에서는 시비법, 물관리, 병충해 방제, 수확시기 등 종합적인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관 교육을 실시하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고품질 쌀 생산기술 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간지, 전문지 등을 통해 비료감축 등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소득을 제고한 농가의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밥맛이 떨어지므로 질소질 비료 감축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비료 시비량의 감축을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와 연계한 질소비료 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양검정 결과에 대하여 마을별, 들녘별 공동연대 책임제를 추진하여 논농업 직불제 지원 3진 아웃제를 적용(1차 경고, 2차 보조금 50% 감액, 3차 지원중단)하고, 과다시비로 필지당 1/2이상 도복된 논에 대하여는 1년차 경고, 2년차 지원제외 등의 제제 조치를 취하는 등 친환경 영농의무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별 쌀 관련 평가

시상시에는 질소 감축량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비료판매량, 토양분석, 도체(稻體) 질소검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지도기관 : 실질적 고품질 쌀 생산기술 전파 및 대국민 홍보

지자체 및 지도기관은 우리 쌀 살리기 운동 측면에서 지자체 장의 공한발송, 새해 영농 설계교육, 영농기 마을 교육, 마을 앰프방송,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과다 시비 농가를 대상으로 질소비료 50% 줄이기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질소질 비료 감축 지도를 위한 들녘 담당자를 지정하고, 농업인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원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며, 지자체 자율적으로 고품질 쌀 최고 생산단지를 육성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3) 쌀 재배농가 : 고품질 쌀에 대한 자율적인 인식 제고

쌀 재배농가는 우수 영농조합법인, 쌀 전업농, 작목반 등과 연계하여 질소비료 감축효과(비료대 절감, 미질향상 → 소득제고) 인식을 확산토록 하고, 우수농가 시상시에는 양보다는 품질위주의 우수 농가에 대한 시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무료 토양검정을 확대 실시하여 쌀 재배 농가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에 의한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지력증진을 통한 안정적 고품질 쌀 생산

지력증진이 고품질 쌀 생산에 필수적이거나, 대부분의 벼농사는 화학비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지력증진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논에 대한 벅짚 환원율은 2000년 일본 니이가타현의 경우 92%인 반면 우리나라는 30~60%에 불과한 등 벅짚 환원

이 미흡하고 벅짚을 태우는 농가도 많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일본은 49kg(1995년)이나 우리나라는 22kg(1999년)에 불과한 실정에 있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벅짚(600kg/10a)은 규산 252kg, 유기물 174kg, 염화加里 34kg, 용인 29kg, 요소 9kg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벅짚을 논에 환원하면 토양 유기물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논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 벅짚 태우기를 방지하고 벅짚을 갈아 갈아주기를 실시하며, 왕겨 등 부산물을 최대한 논에 되돌려 주기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효규산 함량 부족 논에 대하여는 규산질 비료 시비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규산질 비료는 병충해 및 쓰러짐을 경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2002년도에는 495억원(규산 298, 석회 197)의 예산으로 765천톤을 공급할 계획이다(4년 1주기 무상공급). 사질 논 등 저위 생산지에 대하여는 점질 함량이 15% 이상되도록 75억원을 융자지원하여 5.7천ha에 대한 객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노는 논에 대하여는 사료 녹비작물(자운영, 호밀, 보리 등)을 재배토록 하여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대하고 축산 조사료 자급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01년 118천ha에 대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에는 132천ha, 2005년에는 200천ha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녹비작물은 종자대 전액, 사료작물은 종자 비료 임대료를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라. 친환경 재배 쌀 등 특수미 재배기반 조성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재배쌀 등 안전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친환경 인증쌀은 재배면적이 1,835ha, 재배농가가 3,887호이며 판매액이 228억원에 달하고 있

다. 그러나 친환경 재배쌀에 대한 재배기술은 아직까지도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친환경 농업마을 등 44개소에 161억원(보조 80% 지원)을 지원하는 등으로 친환경 쌀 재배단지(50ha 수준)를 조성할 계획이며,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2001년 21천ha에서 2002년도에는 31천ha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오리농법 등 친환경쌀 재배기술 지침을 작성 보급하고, 친환경농법 및 농자재 사용효과 실증 시험포를 확대 설치하여 화학비료 농약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농자재 보급 및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2년에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500기에 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직거래 계약재배확대 및 직거래 매취자금 확대지원, 품질 및 가격 차별화가 가능한 무농약 이상 표시 인증 확대, 친환경쌀 판매망 확충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친환경쌀 판매 및 소비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 고품질 쌀 계열화 추진

현행 RPC는 수매, 저장, 가공에만 집중하고 있어 계약생산, 수매 가공 판매의 역할 분담이 미정착 되어 있고 RPC간 고품질 쌀 생산 경쟁 의식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농림부에서는 RPC가 생산부터 수매,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일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 RPC를 대상으로 고품질 쌀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여 RPC가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의 주체가 되도록 육성하기로 하였다. RPC의 계열화 사업은 RPC 인근 들의 집단 재배단지(재배규모 500ha이상, 농가규모 500호

/RPC당)와 계약재배를 통해 추진되는데 계약 사항에는 품종(2~3개), 벃짚 환원여부, 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량 감축계획, 물관리, 병충해 방제, 적기수확 및 수확시기 지정, 고온 급속 과건 방지 등 품질관련 조항이 포함되게 된다.

농업인에 대한 계약재배 지원대책으로는 RPC 대표와 작목반장 등이 참여하는 계약재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품종선택, 시비량 감축, 수확시기, 수매량 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토록 하고,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는 RPC 계약재배 농가에게 우선 보급하며 보급종을 공급받지 못한 농가는 RPC에서 자율교환을 알선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재배 참여농가에게 육묘상자, 상토, 유기질 비료 등 자체 계획에 의거 각종 영농자재를 무상공급(농협)하고 계약재배 농가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RPC 계열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RPC 계열화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RPC 및 농업인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비 지원우대, 자동화 육묘센터 설치 지원시 우선권 부여, 유통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차등지원, 일본 등 선진지 견학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 적정 건조, 저장 및 가공 등 수확후 관리철저

고품질 쌀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건조, 저장, 가공 등 수확후 관리(Post-harvest)가 매우 중요한데 그 동안에는 수확후 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 RPC 및 화력건조기는 주로 고온 급속 건조(60℃ 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고온 급속 건조시에는 찌라기가 발생되어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저장시에는 상온 저장 및 야적으로 벼의 과다 건조, 호흡 증대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되며, 가공시 여러 품종을 혼합 가공함으로써 품종간 차별화가 미흡하고 미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온 급속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재배

농가의 이양 수확시기를 지정함으로써 홍수 출하가 되지 않도록 하며, 중앙,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으로 RPC에 대한 부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건조 및 저장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면 위에서 직접 건조시에는 싸라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멍석 밑에 짚 등을 깔고 건조토록 하는 등의 적정 건조요령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하는 등 농가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공시 혼합가공을 근절하기 위하여 재배품종을 2~3개 정도의 품종으로 계약재배토록 하고 포장재에 품종명을 표시토록 지도해 나가며, 주기적인 교육 및 지도를 통해 RPC 및 가공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RPC 브랜드간 품질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으뜸쌀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고의 고품질 쌀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사. 쌀 평가시상 방법의 전환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유도

'93년이후 흉작이 지속됨에 따라 '96년부터 강력한 쌀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휴경논 생산화, 양질 다수성 품종 보급확대, 단위수량 제고 등의 쌀 증산대책 추진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실적가산금을 지원(2000년의 경우 200억원)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고품질 쌀 생산대책이 초기에 가시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품질쌀 생산 벼 재배면적, 질소비료 줄이기 실적, RPC 및 지역 농협의 계약재배 실적, 건조실태, RPC 가공쌀 품질 평가, 식미특성, 브랜드 개발, 발벼 재배 억제대책, 벼 재배 면적 증감 등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된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 『고품질 쌀생산 대책 추진 본부』설치 운영

농림부에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고품질 쌀생산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농촌진흥청, 시·도, 시·군, 농협, 농업기반공사에는 고품질 쌀생산대책상황실을 두어 2002.2~11월까지 운영키로 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영농단계별 대책 추진 및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적정 재배면적 유지 등 대책 추진

가. 발벼 재배 억제 및 휴경논 생산화 추진 중단 등으로 적정재배 면적 유지

벼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발벼에 대한 수매를 중단하고, 발벼의 대체작물로서 콩, 옥수수 등 타작목을 재배토록 하고 발찰벼도 논에서 재배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휴경논에 대해서는 생산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타작목으로 재배토록 유도하며, 논 농업직접지불제 대상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도 직접지불제 지급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2001.12.6). 또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규제하였던 규정을 해제키로 하고 2001년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 인건비, 자재비 등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농가 실질소득 제고

농가의 실질 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적,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쌀경영비 절감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지정리, 배수개선,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전업농 10만호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규모화 사업 추진, 농작업의 복합 생력화 기계(이앙동시 시비 제조제 살포 등) 공급 확대, 직파재배면적을 2000

년 74천ha, 2001년 84천ha에서 2002년에는 90천ha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과 연계하여 비료 농약대 감축 및 관련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축산분뇨액비화사업과 연계한 경영비 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푸른들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녹비 사료작물 생산면적을 확대하여 토지이용율을 증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운영 등 녹비작물에 대한 종자비를 ha당 20만원 지원하고, 호밀 등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ha당 1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쌀생산 시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5. 맺는말

우리의 농정은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농가 소득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국제경쟁력 미흡과 국민의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재고량 증가 등의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각료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률안이 2001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지만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농어업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표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농정은 양(量)중심에서 질(質) 중심으로, 생산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대량생산보다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중시되는

농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12월 농림부에서 발표한 『2002년도 고품질 쌀 생산대책』은 농정의 전환을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한해 수해 등 재해 발생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역할은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농업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더 섬세하게 그 방향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